

전이성 폐암의 수술후 장기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예후 인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
홍기표, 정경영, 김길동, 김도균

배경 및 목적 : 최근 전이성 폐암의 수술적 치료에 대한 병인적 당위성이 밝혀지고 실제로 수술한 결과 생존율이 증가하고 수술로 인한 사망률이나 합병증 발생률이 낮아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되어 지고 있다. 그러나 수술후 장기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예후 인자에 관하여는 연구마다 다른 결과를 발표하는 등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이성 폐암의 수술적 치료 지침에 도움이 되고자 추적 조사를 통해 장기 생존율을 분석하여 예후 인자를 규명하고자 한다.

방법 : 1990년 1월부터 1997년 12월까지 신촌세브란스 병원 흉부외과에서 수술한 전이성 폐암 환자 63명을 대상으로 하여 성별, 원발 종양의 세포형, Disease Free Interval(DFI), 전이성 폐암의 위치 및 수술 방법, 전이성 폐암의 병소의 갯수 및 크기 등에 따른 수술후 장기성적을 분석하였다.

결과 : 환자의 평균 연령은 45세였으며 최소 2세부터 최고 73세까지였다. 환자의 성비는 남자가 27명(42.9%), 여자가 36명(57.1%)이었으며 성비에 따른 장기 생존율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850$). 원발 종양은 암종이 32례(50.8%), 육종이 28례(44.4%), 그 외 Lymphoma등 기타 종양이 각각 1례씩 3례(4.8%) 있었다. 암종중에는 대장암이 17례(53.1%)로 가장 많았고 육종에서는 골육종이 12례(42.8%)로 가장 많았다. 원발 종양의 세포형에 따른 장기 생존율은 암종 집단의 3년 생존율이 55.5%, 육종 집단의 3년 생존율은 17.4%로서 암종 집단의 장기 성적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072$). 원발성 종양의 수술적 치료후 전이성 폐암이 발견되어 수술에 이르기까지 걸린 시간(DFI)은 최소 0.4개월부터 102개월까지이며 평균 28.7 ± 25.4 개월이었다. 수술적으로 원발 종양을 치료하지 않은 경우와 초기 진단시 폐전이를 동반한 경우를 제외한 49명을 대상으로 DFI를 12개월 미만(10명:20.4%)과 12개월 이상(39명:79.6%)으로 나누어 비교시 3년 생존율이 각각 16.0%, 49.6%로서 12개월 이상 군의 성적이 우수하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583$). 전이성 폐암의 수술에 있어 폐 부분 절제술이 44례(69.8%), 양엽 절제술을 포함하여 폐엽 절제술 또는 전폐 절제술이 19례(30.1%)이며 양 집단간에 생존율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559$). 전이성 폐암이 일측성인 군은 47명(74.6%)이고 양측성인 군은 16명(25.4%)이었으며 생존율은 양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851$). 전이성 폐암의 개수는 1개(38명:60.3%), 2,3개(14명:22.2%), 4개이상(11명:17.5%)으로 나누어 생존율을 비교시 3년 생존율은 각각 46.1%, 30.6%, 15.6%로서 개수가 많을수록 성적이 안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254$). 전이 폐암의 크기를 10mm이하(13명:20.6%)와 11mm에서 30mm이하(28명:44.4%), 30mm초과 군(22명:34.9%)으로 나누어 생존율을 비교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751$).

결론 : 환자의 성별, 원발성 종양의 세포형, Disease Free Interval, 전이된 폐암 병소의 개수 및 크기, 전이성 폐암의 수술 방법 등에 따른 장기성적을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없었다.

책임저자 : 홍기표(연세대학교) 발표자 : 홍기표(연세대학교)